

6/30/18

설교 제목: 진실한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호세아 6 장 1-11

- (호 6:1)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 (호 6:2)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 (호 6:3)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 (호 6:4)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절판주** 호 11:8
- (호 6:5)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 (호 6:6)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 (호 6:7)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 (호 6:8)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 (호 6:9)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 (호 6:10)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 (호 6:11)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 백성들 모두가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 북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북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만해지자 마치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양 착각하고 교만해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바알 신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북 이스라엘에 대해 진노하셔서 심판하여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 이스라엘의 운명은 필히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라도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북 이스라엘의 멸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북 이스라엘이 죄를 깨닫고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 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그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북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교만하여져 호세아 선지자의 권면을 듣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이들은 호세아 선지자의 권면에 잠시 회개의 열망을 품었을 뿐 삶에서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호 6:1)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면서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하여 자신의 권면이 그들로 하여금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한 배려입니다.

북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앗수르에게 멸망당한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낮게 해 주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어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당신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신속하게 회복시키십니다.

(호 6:2)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흔히 쓰는 표현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지라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에 처해 있던지 상관없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빠른 속도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호 6:3)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밤이 깊어지면 칠흑같이 어두워져 도저히 새벽이 올 것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한 시간이 되면 새벽 빛이 찾아와 어두움을 물리치고 새벽을 밝혀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정한 시간에 반드시 북 이스라엘을 찾아 오셔서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북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진실로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며 그 근거를 대십니다.

1.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에게서 회개의 증거인 인애를 찾아 볼 수 없다고 하십니다.

(호 6:4)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인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자신이 받은 사랑에 감사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애는 회개한 자에게서 나타나 보여져야 하는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은 북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회개의 결과로 나타나지는 인애를 보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보여진 인애는 마치 아침 구름이나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슬같이 순간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진실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호 6:5)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교만해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경제적으로도 풍성하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으며 군사적으로  
강력하여 평안한 가운데 풍요를 누리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이렇게 좋은데 무슨 재수없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산다는 선지자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했습니다.

2.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호 6:6)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형식적이고 의식만을 갖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해야 할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삶이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인애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인애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이웃에 대한 사랑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는 삶의 변화없이 제사만을 지내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안심하며 스스로 의롭게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인애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실이 담기지 않은 거짓된 예배, 의식만을 갖춘 형식적인 예배를 거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배와 삶을 분리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교 의식은 지켰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3.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에게 진실함이 없다고 하십니다.

(호 6:7)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과 같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죄를 졌습니다.

이들의 죄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북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로 철저히 은닉되어져 아무도 알지 못하는 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백성들의 죄로 누구나 예사로 생각하고 저지르기 때문에 죄로 여기지도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먼저 북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호 6:8)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호 6:9)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요단강 동편 길르앗과 서편 세겜에는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도피성이 있었고 그 주변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살았습니다.

도피성은 의도성이 없이 사고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피의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마련해 놓은 피난처였습니다.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면 살인자는 고의성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에서 살인자가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정되면 피해자 가족들의 복수를 피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무죄로 풀려나와 자유의 몸이 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도피성에 피하여 온 사람의 생명은 대제사장의 생명과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이 살아 있는 동안 그곳에 머물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무죄로 풀려나와 자유의 몸이 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살인자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은 것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들도 그와 연합하여 함께 죽은 것이 되고 그가 삼일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들도 그와 연합하여 함께 영생을 얻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은혜의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길르앗과 세겜에서 살인이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살인을 하니'라는 표현은 지도자들이 고의로 살인을 일삼으며 도피성을 악용했음을 암시해 줍니다.

길르앗이 행악자의 고을로서 피로 가득했다는 것은 피의 복수를 막아야 할 성스러운 장소에서 오히려 살인의 피가 흥건할 만큼 이스라엘의 타락과 죄가 깊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교묘하게 위장된 무서운 죄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부패할 대로 부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연이어 북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란 죄를 지적하십니다.

이 죄는 모두가 공공연하게 행해졌기에 저들끼리는 죄로 간주하지도 않는 죄입니다.

(호 6:10)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이스라엘 집'은 여로보암이 지정한 벰엘에 있는 성소를 가리킵니다.

성소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곳에서 영적 간음 행위 우상숭배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430 년동안 애굽에서 노예 살이를 하던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애굽 군대가 뒤 쫓아 오자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바다를 맨 땅 건듯 걸어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 40 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셨고 의복과 신발이 헐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자 거기에 살고 있던 토착민들을 다 내쫓아 버리고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농사를 짓는데는 농업의 신인 바알을 믿고 따라야 한다고 바알을 쫓다니요?

남 유다도 다를 것 없습니다.

(호 6:11)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유다도 근본적으로 똑같은 것입니다.

남 유다는 하나님께서 북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심판을 보고 자신들도 두려워하며 회개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도 추수할 일이 정해졌습니다.

여기서 '추수'란 징벌, 심판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란 말은 죄와 우상숭배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려고 징벌할 때라는 의미입니다.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받지 못하는 민족은 희망이 없습니다.

북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로 인해 하나님께 당한 심판으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받지 못한 남 유다는 결국 북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와 번제물이 아닙니다.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진실함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증거물들입니다.

이 증거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실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 온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입술로만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당신 앞에 온전히 산 제물로 바쳐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시간 이곳에 진정한 회개와 회복의 역사 일어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